



노사정위원회
Korea Tripartite Commission

▶ 2005. 7.13 ▶ 총 3 쪽

보 도 자 료

■ 운영국 기획과

- 전 화 : 3215 - 3815 ~ 7

- 팩 스 : 3215- 3851

www.lmg.go.kr

노사정위원회, 각 회의체 운영 계속하기로

- 사회적 대화체제의 조기 정상화 노력도 병행 -

- 노사정위원회(위원장 김금수)는 오늘(7.13.수)10:00에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'확대운영위원회'를 개최하여
 - 향후 특·소위 등 각급 회의체를 계속 운영기로 결정했으며
 - 또한,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.
- ※ **확대운영위원회** : 노사정위 운영세칙 제13조에 의해 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(위원장, 상임위원, 특·소위 위원장으로 구성)에 특·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상무위, 본위원회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구성

□ 최근 한국노총의 탈퇴 결정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(7.13,수) 10:00에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

○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노동계의 잇따른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노사정

위 운영 및 사회적 대화체제 복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
논의를 진행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, 각급 회의체가 현재 다루고 있는
의제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 위원 참여하에 계속 논의기로
하였다.

○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례
연구 등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※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공, 금융, 제조업발전, 특수형태근로종
사자 특위 등 4개 특위와 노사관계, 경제, 사회소위 등 3개 소위가
활동 중임.

○ 이와 같이 의제에 대한 주요 논점을 도출하는 등 논의를 진행
시키되 합의 도출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노동계의 복귀시
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사회적 대화체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익위원 등
이 노·사·정 각 주체들과의 공식·비공식 접촉을 통해
대화와 설득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

○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
지지를 제고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복귀시까지 논의 가능한 사
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, 주기적으로

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급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
지원해나갈 예정이다. 끝.